

순천 화상경마장 백지화되나

지역민 강력 반발… 전남도, 농림식품부에 승인 철회 요청

전남도가 순천 마권 장외거래소(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정부와 마사 회측 대응이 주목된다.

전남도는 20일 한국마사회가 개장 을 준비중인 순천 화상경마장의 시설

설치 승인을 철회해줄 것을 농림수산 식품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등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고, 지역 갈등마저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경마장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화상경마장 사업은 지난 2006년 순천 지역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가 농 식품부가 지난 4월 재승인하면서 ‘순

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순천시의회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친·인척 관련 안건

지방의원 심의 금지

권의위, 행동강령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이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불, 흥정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 금품을 받을 경우 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개입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면 안된다.

아울러 의원은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도 없다. /연합뉴스

첫 기상 위성 천리안 24일 발사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서

국가우주개발사업을 통해 최초로 개발된 천리안 위성이 발사 4일을 앞두고 발사체 내 조립을 끝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천리안 위성이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꾸르발사장에서 위성체 연료충전을 마치고 동시에 탑재 예정인 아랍샛(Arabsat) 5A 위성과 함께 아리안 발사체 내 조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천리안 위성이 탑재한 발사체는 발사 전 최종 리하설을 거쳐 발사대로 옮겨진 뒤 현지시간 23일 오후 6시 41분에서 7시 45분(한국시간 24일 오전 6시 41분에서 7시 45분) 사이에 발사될 예정이다.

천리안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으로 서, 발사 후 목표 정지궤도에 진입하 기 위해서는 최대 2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발사 25분 후 면자 근지점(250km), 원지점(3만5천943km)의 타원궤도인 천이궤도에 진입하고 발사시점부터 약 31분 후에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호주 동가라(Dongara) 지상국과 첫 교신을 하게 된다.

발사 3시간 뒤에는 태양전지판을 부분 전개하고 총 3차례의 위성체 자체 엔진을 분사해 타원궤도에서 표류궤도로 상승한 후 표류궤도에서 고도를 높여 목표 정지궤도에 동경 128.2도에 자리잡게 된다. 천리안 위성은 통신·해양·기상 3가지 기능을 하나의 위성에 탑재한 정지궤도 복합위성으로서, 앞으로 7년간 하루 24시간 내내 위성통신 서비스와 한반도 주변의 기상과 해양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천리안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으로서, 발사 후 목표 정지궤도에 진입하는 이 유형 안무가 딘 모스의 ‘네일리스 포레스트’, ‘공연창작집단 뛰다’(한국)의 ‘인형과 사람 프로젝트’, ‘솔라이클립스’(한국)의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다.

“영·유아식 참 맛있어요”

광주시 북구청은 지난 19일 북구 운암동 한 요리학원에서 주부들을 대상

민든 백설기, 치킨너겟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숙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예술극장 ‘공연예술’ 국제공모 韓·美 3개 작품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종 심도시주진단은 수준 높은 창작공 연 개발을 위해 실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예술극장의 ‘공연예술 작품개발 계획안’ 국제 공모에서 3개 작품을 지원 대상으 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3개국 71개 작품이 응모한 이 번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은 미국

의 유명 안무가 딘 모스의 ‘네일리스 포레스트’, ‘공연창작집단 뛰다’(한국)의 ‘인형과 사람 프로젝트’, ‘솔라이클립스’(한국)의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다.

이들 작품들은 개발 지원금 각 2 천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릴 창작 워크숍을 거쳐 제작비 추가 지원 및 예술극장 견립

을 기념한 공연 여부가 결정된다. 아시아예술극장은 또 오는 10월 국제 프로듀서 캠프를 통해 해외 유명 프로듀서들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달 중 호주 예술감독 로빈 아처, 폴란드 예술 감독 바르토시 쉬드 워프스키, 공연배급 책임자 바바라 스토프를 초청해 사전모임을 갖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개원 중 하나로 광주시에 접한 종인 아시아예술극장은 세계와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작품의 산실이다 창작 및 제작,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本社人事

- ▲金東信 경영지원국 부국장(재권관리역)
 - ▲李文秀 광고마케팅국 부국장(영업외근)
 - ▲梁仙寬 광고마케팅국 부정영업외근
 - ▲朴珍賢 기획사업국 부장
 - ▲李宗泰 기획사업국 부장
 - ▲高敬錫 기획사업국 부장
 - ▲金日煥 기획사업국 부장
 - ▲徐承原 기획사업국 차장
 - ▲朴正勳 기획사업국 차장
 - ▲程厚植 편집국 경영부장
 - ▲朴治昊 편집국 사회부장
 - ▲金柱正 편집국 여론매체부장(체육부장 겸임)
 - ▲金美根 편집국 문화생활부장 직무 대리
 - ▲羅明柱 편집국 사진조사부장 직무 대리
 - ▲魏穆良 독자서비스국 판매부 차장
- 〈6월21일자〉

전남산 황토 보전대책 마련

전남도는 20일 계르마늄 등 다양한 유해성분을 함유해 품질이 뛰어난 전남산 황토에 대한 자원 보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매립, 농업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황토 사용을 막자는 것으로, 전남도는 벼 육묘용 상토 생 산업체, 미생물 기업, 생물방제센터, 농업기술원 등과 협의회를 갖고 농가에 공급하는 상토의 원료로 사용되는 황토 대신에 제오리아트, 피트모스 등 대체물질을 활용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또 토양 개량용 객토와 종전 방식의 황토를 이용한 뭇자리 상토 방식을 중단하고 이를 위해 황토 체취 목적의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허가는 불허 하되 필요한 경우 도로 공사나 시설물 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황토를 활용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황토도 논, 밭의 본래 토양 흙과 미생물을 훈합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고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 등에 효과 있는 제품을 개발해 황토 보존과 농작물 품질·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 기로 했다. 특히 전남산 황토는 논흙에 비해 오염도가 낮아 질병에 강하고 타 원료보다 구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원종력과 매트형성이 뛰어나 육묘용 상토와 객토용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황토 체취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만도 10㏊에 달하며 황토 체취량은 무려 32만4000t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권익위원회

- 김종우



수비가 장난 아닌데요

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

쌀·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오는 8월5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 점은 사용하고 있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빠져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20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00m 이상의 음식점만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8월5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또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 등 음식점은 소주와 막주, 닭갈비 등 술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도 종

전 1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늘어나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을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기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